

빵·식용유·커피값 다 올랐다…물가 들쭉

소비자물가 3개월 연속 2%대 상승…생활물가 2.4% 올라

가공식품 3.6% ↑…커피 8.3%·김치 15.3% 등 오름세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긴 했지만 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물가가 3% 넘는 상승률을 나타내는 등 먹거리 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9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초 3%대에서 점차 하락하기 시작해 하반기에는 9월(1.6%), 10월(1.3%), 11월(1.5%), 12월(1.9%) 4개월 연속 1%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환율 급등과 미국의 관세 정책 등이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하면서 올해 들어서는 1월(2.2%), 2월(2.0%), 3월(2.1%)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가고 있다.

주식물과 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 먹거리 가격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상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7% 올랐다. 농축수산물들은 0.9%, 공업제품은 1.7%, 전기·가스·수도도는 3.1% 상승했다.

농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1% 하락했다. 배추(49.7%), 무(86.4%), 양파(26.9%) 등의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간 반면 토마토(-19.8%), 사과(-6.0), 파(-18.3%), 감(-26.5%), 파프리카(-13.1%) 등은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3.1%와 4.9%씩 상승했다. 돼지고기(6.5%), 닭(32.8%), 수입 쇠고기(5.6%), 고등어(7.8%) 등의 가격이 전 달보다 크게 올랐다. 수산물 물가는 2023년 8월(6.0%) 이후 1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또 공업제품 중 가공식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해 2023년

12월(4.2%)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커피(8.3%), 빵(6.3%), 김치(15.3%), 햄 및 베이컨(6.0%) 등의 최근 가격 인상이 물가에 반영됐다.

반면 전기·가스·수도 관련 품목인 도시가스(6.9%), 지역난방비(9.8%), 상수도료(3.7%) 등은 크게 올랐다.

서비스 분야(2.3%)도 물가 상승세를 자극했다. 개인서비스는 지난해보다 3.1% 올랐다. 외식(3.0%)과 외식제외(3.2%) 서비스 가격이 모두 상승했다. 생선회(5.4%), 치킨(5.3%), 보험서비스료(15.1%), 공동주택관리비(4.3%) 등의 상승폭이 컸다.

집세는 0.7%, 공공서비스는 1.4% 상승했다. 공공서비스 물가는 사립 대학교납입금(5.2%) 상승 등의 요인으로 2월 0.8%에서 3월 1.4%로 높아졌다.

특히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에서는 대부분의 품목군에서 물가가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빵·곡물(3.6%), 육류(3.6%), 어류·수산물(3.6%), 식용유지(7.3%), 채소·해조(3.4%), 과자·빙과류·당류(3.1%), 커피·차·코코아(12.4%), 생수·청량음료 등(5.3%) 등이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고, 과일(-5.5%)과 우유·치즈·계란(-0.2%)만 하락했다.

먹거리 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3월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4%를 기록했다.

다만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등락을 배제한 근원물가지수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인 2% 대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등락을 배제한 근원물가지수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인 2% 대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했다.

/뉴시스



남도장터, 대한민국 수산대전…최대 20% 할인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봄 맞이 대한민국 수산대전 수산인의 날 특별전’을 개최한다. 행사는 오는 6일까지, 매주 1인 최대 20% 할인 한다.

/남도장터 제공

‘금호 BMW M 클래스’ 금호타이어 독점 공급

금호타이어가 최근 강원도 인제군 인제 스피드돔에서 개막한 ‘금호 BMW M 클래스’에 타이어를 독점 공급했다고 2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수십년간 축적해 온 모터스포츠 기술력을 바탕으로 BMW사의 고성능 차량이 참가하는 M 시리즈 원메이크 클래스의 공식 타이어사로 참여하게 돼 첨단 고성능 타이어 기술력을 증명했다.

특히 고속 주행과 극한의 트랙 조건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금호타이어의 고성능 타이어 기술력을 선보이고 BMW M 차량의 성능을 극대화하며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보였다.

금호 BMW M 클래스는 BMW M 시리즈 차종으로 진행되는 레이스로 가장 빠른 랩타임을 겨루는 타임 트라이얼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BMW M 클래스는 아마추어 레이싱 부문의 최고봉이라 불릴 만큼 걸출한 선수들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번 BMW M 클래스에 출전하는 모든 차량에는 고속 주행 중에도 탁월한 접지력과 안정적인 핸들링 성능을 발휘하는 금호타이어 초고성능 타이어 엑스타 스포츠(ECSTA SPORT)를 장착한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후원 계약을 통해 올시즌까지 BMW M 클래스 대회용 타이어를 전량 유상 공급한다. 또 이번 공급을 통해 레이싱 타이어 기술력의 진가를 다시 한번 입증하고 성공적인 경기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윤민석 G.마케팅담당 상무는 “금호타이어는 국내외 다양한 모터스포츠 대회의 공식 타이어로 활약하며 글로벌 타이어 브랜드로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모터스포츠의 높은 기준에 맞는 타이어 기술을 개발하고 더 많은 팬들에게 고성능 타이어의 우수성을 알리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1900만원대 SUV’ 2025 메뉴 출시…안전 사양 기본화

엔트리 트림 ‘스마트’ 신규 추가

프리미엄 트림, 안전 옵션 전면 탑재



2025 메뉴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가 대표 소형 SUV 메뉴의 연식변경 모델 ‘2025 메뉴’를 2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 2025 메뉴는 신규 트림을 추가하

고 고객 선호 사양을 기본화해 상품 경쟁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엔트리 트림인 ‘스마트’가 새롭게 추가됐다. 스마트 트림에는 ▲열선

가죽 스티어링 휠 ▲가속 변속기 노브 ▲폼오토 에어컨 ▲버튼시동 및 스마트키 ▲스마트키 원격시동 등이 기본 적용돼 편의성을 강화했다.

기존 인기 트림 ‘프리미엄’에는 선택 사양이었던 ▲전방충돌방지 보조(교차로 대향차) ▲후측방 충돌 경고(주행)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전진출차)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스탑앤고 미포함) 등 주요 지능형 안전 기술이 기본 탑재돼 상품성이 크게 향상됐다.

판매 가격은 개별소비세 3.5% 기준 ▲스마트 1926만원 ▲프리미엄 2212만원 ▲플러스 2386만원이다.

현대차는 2025 메뉴 출시를 기념해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30일까지 계약하고 6월 30일까지 차량을 출고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고든밀러 세차 키트를 증정할 예정이다.

2026 섬박람회 앞두고, 여수에 ‘대형 호텔’ 건립 잇따른다

힐튼 등 국내외 유명 브랜드…K관광 대표 도시 기대감 상승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1년여 앞두고 전남 여수에 국내외 대형 프랜차이즈 호텔들이 속속 들어설 예정이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중앙 최대 시설로 추진되는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에 호남 최초 최고급 브랜드호텔 건립이 추진된다.

이 호텔은 29층 307실 규모 5성급 호텔로, 설계는 국제 공모로 진행된 다.

랜드마크급 디자인을 반영한 건축물로 설계한 뒤 내년 4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오는 2029년 개장을 목표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추진하고 있다.

부대시설로는 그랜드볼룸, 세미나실, 실내의 수영장, 레스토랑 등이 포함된다.

여수 화양지구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206m 규모의 인피니티 사계절 수영장을 갖춘 ‘힐&테라스 콘도’가 들어선다.

화양복합관광단지조성사업은 6.43㎢ 부지에 골프장과 호텔, 콘도, 문화시설이 들어서며, 약 1조 524억원이 투입된다.

핵심 시설이 될 힐&테라스 콘도는 지하 6층, 지상 10층에 274객실, 500명 수용 규모의 컨벤션 등을 갖춘 숙박시설이다. 사업 시행자인 H&D오션리조트㈜는 지난해 11월 실시설계와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착공했다.

여수시 화동 해안가에는 세계적 호텔 체인인 힐튼호텔이 지상 24층 179실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해 6월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반블루

윙스가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수시 수정동 30번지 3만1000㎡일원에는 유명 호텔 체인으로 알려진 5성급 10층 규모의 호텔이 들어설 전망이다.

오동도와 남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오션뷰로 운동시설(수영장)과 편의시설(전망데크), 특수시설(해양광장, 동굴광장) 등을 갖춘 예정이다.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마쳤으며, 실시계획 및 건축인허가 절차 이행을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그간 시가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외에 공을 들였고, 여수가 K관광을 대표하는 도시로 급부상하면서 관련한 국내외 투자가 늘고 있다”며 “일제히 대형 브랜드 호텔 건립이 늘고 있는 추세여서, 여수가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준 기자

광주송정역 일일 이용객, 21년새 14배 ↑

2004년 954명에서 2025년 1만3809명으로

광주송정역 이용객이 KTX 개통 이후 21년 간 1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코레일광주본부에 따르면 광주송정역 이용객은 지난 2004년 954명에서 2025년 1만3809명으로 늘었다. KTX가 지난 2004년 4월 개통한 이후 21년 만에 14배가 늘어

난 것이다. 반면 운행 횟수는 같은 기간 30회에서 48회로 소폭 늘었다.

광주와 서울을 오가는 운행 시간도 약 36분 단축됐다.

광주~용산 KTX 소요 시간은 지난해 2004년 2시간46분에서 2시간10분으로 줄었다.

/권형안 기자

전남개발공사 ‘ISO 31000’ 획득

공공기관 최초 ‘리스크관리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전남개발공사가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리스크관리경영시스템(ISO 31000)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31000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으로, 경영과 사업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관리체계를 인증하는 제도다.

최고경영자의 리스크관리 의지와 체계적 리스크관리 경영매뉴얼, 리스크관리 조직 운영과 대응 프로세스 등 전사적인 리스크관리 시스

템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전남개발공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원가 급등 등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 비롯된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 주거복지 향상,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 전남 균형발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전사적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에 주력해왔다.

이번 인증은 경영 신뢰성을 높이고 지속가능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김 호 기자

전남, 해양수산가공 창업기업 성장 지원

오는 7일까지 접수…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전남도가 해양수산 분야 기업의 성장과 창업을 도모하기 위해 전남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의 해양수산가공 창업기업 성장지원사업 2차 모집을 7일까지 진행한다

해양수산가공 창업기업 성장지원사업은 지역 해양수산 자원을 활용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양수산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상으로 11개 프로그램 총 31개 기업을 선발, 4억5700만 원 규모의 직·간접 비용을 지원한다. (재)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재)목포수산물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모집 대상 기업은 전남지역 해양수산 관련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이다. 특히 해양수산 관련 제조업이나 가공업을 운영

하는 기업을 선정한다.

직접지원 프로그램은 전주기 육성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 패키지 지원, 신시장 확보를 위한 마케팅 지원으로 구성된다. 지원 내용은 제품개발, 홍보물 제작, 수출 준비 등으로 기업별로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간접지원 프로그램은 신시장 확보를 위해 국내외 박람회 참가 비용을 제공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도록 19개 기업에 총 2억1000만 원을 지원한다. 김산업 클러스터와 같은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된 지원도 포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신청은 방문, 우편, e메일 등으로 가능하며, 신청 서류는 전남도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판이나 (재)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센터, 목포수산물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 호 기자

인력난 벤처기업에 인도 SW 인재 매칭

오늘부터 접수…지난해 대비 인재 풀 100%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해외 우수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연계 사업’에 참여할 벤처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해외 우수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연계 사업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공과대학(IIT) 출신을 비롯한 우수한 소프트웨어(SW) 개발자를 채용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023년 7월 기준 중소기업 SW전문인력 채용·유지가 어렵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75.4%에 달했다. 외국인 채용 의사가 있다고 답한 기업은 54.5%로 절반이 넘었다.

사업을 도입한 지난 한 해동안 국

내 벤처기업 358개사가 신청해 최종 41개사에서 206명의 인도 SW 개발자를 채용했다.

올해는 벤처기업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 내달 1일부터는 인도 SW 개발자를 인도 현지에서 모집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인재 매칭에 나선다. 또 인도 내 다양한 구직자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 현지 데스크를 기존 2곳(노이다(뉴델리), 벵갈루루)에서 총 4곳(푸네, 하이데라바드) 추가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인도 SW인력풀을 1만 5000명에서 3만명까지 늘려 양질의 인력 채용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22일 서울 팀스타운 SI(팀스톡)에서 인도 SW 현지인력 채용시범적인 문제, 고용관계, 채용시 고려할 사항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권형안 기자